

미래정책연구실(2009.09.28)

## □ 농어촌 서비스기준

○ 농어촌 서비스기준(RSS: Rural Services Standard)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으로,

-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감안하는 가이드라인

\* 주거, 교통, 교육, 복지, 보건의료,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대 부문, 30개 기준(안)

## □ 논의 배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와의 서비스 수준 격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의료서비스 도시집중도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 상/하수도 보급률('05) : 군(54.7%/36.1%), 도시(98.1%/89.9%)

\* 문화시설 수도권 집중도 : 도서관 33.2%, 박물관 34.1%, 미술관 48.6%, 문예회관 26.1%

○ 공공서비스 확충은 도농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선진국 사례

- 영국 '농촌서비스기준'
- 독일 '전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 등

## □ 추진경과

-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을 추진함.
  - 11개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추진단(단장 농식품부 제1차관)」 과 실무위원회를 발족('09.2)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 \* 제정추진단 : 재정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여성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농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국장으로 구성
- 이번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의 접근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마련
  -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는, 상하수도, 교통, 응급의료서비스, 자녀 교육 분야, 의료서비스 등

## □ 양우 추진계획

-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 농식품부 주최, 농경연 주관으로 진행
  - 영남권 (9.25일), 호남권 (10.7일), 중부권 미정
  - 농어업인 등 지역주민, 농어업인단체,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
- 농식품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안) 보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
  - 삶의 질 위원회는 도입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
- 농식품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 추진

<별첨>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8개 항목 30개 기준**

부문 (수)	착안 사항	관련 항목	최소 요건 / 정책 목표
주거 (5)	일정수준 주택에서 거주하며,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거주가능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중을 90.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난방	•도시가스 보급률을 읍부 50.0%, 면부 15.0% 이상 달성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난방비 저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공동시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안전한 마실 물	•상수도 보급률을 70.0% 이상으로 증대한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30호 이상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오폐수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5.0% 이상으로 증대한다.
교통 (4)	도보 거리의 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다.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을 하루 6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80.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도록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수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로 정비	•도서지역의 경우 (부속도서를 제외한)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편도 2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되도록 한다. •가급적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가 병행되도록 한다.
교육 (5)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가까운 곳에서 기초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유치원	•읍·면 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최소한 1개 교씩 유지시킨다(절대학교).
		초등학교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주요 과목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고등학교	•교과과목, 특기적성 등 수요 대비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비율을 100% 달성한다.
		평생 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안내 및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씩 운영된다.
		(추가검토)	시·군 단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한다.

보건 의료 (3)	질병 예방, 진료, 치료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	1차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공공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시·군내에서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다.</li> <li>•읍·면별 보건지소 공중보건직원은 해당 관할 구역의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한다.</li> <li>•자동차로 20분 내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거점에 도달할 수 있다.</li> </ul>
		의약품 구입	
사회 복지 * (4)	노인, 청소년 계층별로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농어촌 지역 70세 이상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방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접근할 수 있다.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아동센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응급 (4)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대응 서비스가 신속하다.	구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환자 발생시 최소한의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응급실 이송을 완료한다.</li> <li>•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다.</li> <li>•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li> <li>•112 신고시 90%이상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li> </ul>
		소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문화 여가 * (4)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향유가 가능하다.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공연, 영화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로 30분내 접근 가능한 곳에 공연, 영화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1곳 이상 운영된다.</li> <li>•문화시설별로 월 1회 이상 문화컨텐츠 상영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실연(實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li> <li>•읍·면 단위로도 분기별 1회 이상 찾아오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li> </ul>
정보 통신 (1)	온라인 정보교류가 불편없이 가능하다.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다.

\* 시설은 기능 복합화를 지향